

COMMISSIONERS 위원동정

• 김동국 중재부장 강원법률실무연구회에서 사회

김동국 중재부장(강원중재부,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은 6월 20일 춘천지법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이 공동 주최한 '강원법률실무연구회'에서 사회를 맡았다. '사법부 신뢰 제고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열린 이날 연구회에서는 '사법불신과 법원개혁', '1심 판결을 양형부당으로 파기함에 있어 항소심의 재량의 한계'에 대해 논의했다.

• 변민선 중재부장 양성평등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변민선 중재부장(제주중재부,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은 7월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6년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변민선 중재부장은 2010년부터 이혼 위기 가정 내 아동의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양육 및 이혼상당제도'를 도입해 여성과 아동의 권익증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 발간

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현황 및 제재 사례 등을 수록한 심의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백서에는 불공정 선거보도로 제재결정한 55건의 심의사례와 후보자의 시정요구 21건 등 총 76건의 결정문 전문을 수록하였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에서 e-book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박용상 위원장, 충북지역 언론사 대표와 간담

박용상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7월 12일, 충북중재부 중재위원 및 충북지역 언론사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인터넷을 통한 뉴스소비가 주된 흐름이 된 언론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언론피해 양상을 수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언론피해구제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잘못된 온라인 기사의 복제·전파 및 위법한 기사 댓글로 인한 인격권 침해 분쟁을 일괄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용성
심리본부 기사심의팀



언론중재위원회

새 얼굴

언론중재위원회



박선영
교육본부 교육운영팀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 서른 살은 온다" 대학생 때 인상 깊게 읽었던 최승자 시인의 <삼심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몇 해가 지나고 보니 이 시구절이 저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학생-고시생-군인-취업준비생의 시간을 보내고 나니 이십 대를 훌쩍 지나 서른 살이 되었는데, 이대로 살 수도 없고, 이대로 죽을 수도 없는 상황에 놓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서른 살 찾해의 절반이 지난 지금, 이전 조금 살 만한 여유가 생겼습니다. 망망대해에서의 오랜 방황을 달래주고도 남은 곳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착했기 때문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제 관심사였던 미디어 분야와 제 전공인 법학을 접목할 수 있는 최적의 직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서 후회 없는 30대와 그 이후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지금은 갓 자대에 배치된 신병처럼 어색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는 능숙하게 제 몫을 해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를 믿고 뽑아준 '언론중재위원회'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스물둘이던 2013년, 중재위원이었던 교수님께 언론법제 수업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언론중재위원회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언론법제를 공부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개념은 '독수의 과실'이었습니다. 독이 있는 나무에서 독이 있는 열매가 열리듯, 아무리 잘 쓴 기사라도 취재 과정이 위법했다면 기사는 엄중한 심판을 피하기 힘들다는 내용이었습니니다. 학보사에서 고발성 기사를 쓰며 취재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저는 독수의 과실 이론이 기자에게 가혹하던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법한 취재 과정을 거치지 않은 기사들이 쏟아지는 요즘, 원칙을 지켜 양질의 기사를 생산하는 것이야말로 언론의 품격을 보여주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발생 시, 무료로 정정 또는 반론보도를 요구할 수 있는 언론피해구제시스템입니다. 언론학을 전공하며 관심있게 공부했던 기관에서 일하게 됐다는 사실이 아직도 신기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일원으로서 언론과 국민을 잇는 사회적 역할을 잘 해내고 싶습니다.